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다. 그리웠던 이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고 싶은데, 가격도 종류도 다양해 만만치 않다. '과일의 고장' 장성군이 추석에 맞아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40여 품목을 엄선해 소비자의 고민을 덜었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썬(HACCP), GAP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자타 공인 '명품' 들만 골랐다. 축령산, 백암산, 불태산의 맑은 공기 아래 재배된 장성의 고품질 농특산물들을 소개한다.

추석

“을 추석선물은 명품 ‘장성 농특산물’로”



샤인머스켓



장성 사과



새싹삼

당도 높고 아삭한 사과... 면역력 높이고 간 보호 새싹삼 '포도의 여왕' 샤인머스켓·송이버섯 등 고급 선물로 제격 수완 농협광주유통센터·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서도 판매

◇ 대한민국 최남단 재배 '장성 사과' 식감 탁월 장성 농특산물을 언급할 때 맨 앞줄에 서야 할 과일이 바로 '사과'다. 감과 함께 장성이 자랑하는 최고의 과일로 손꼽힌다.

장성은 사과 재배지 가운데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 사과의 당도가 높으며, 특히 식감이 우수하다. 서해풍의 영향으로 재배 기간 동안 강추위를 만날 일이 없어 병해 인을 일으키지 않는다. 뛰어난 맛과 고른 품질이 장성 사과를 유명하게 만든 요소다.

인기가 높고 수요가 꾸준하니 재배지의 규모도 크다. 장성지역 내 283농가에서 223ha 규모로 사과를 길러내고 있다.

이번 추석에 준비된 홍로의 가격은 4만~6만원 선으로,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배를 포함한 혼합세트도 있다.

장성 사과로 만든 사과즙도 인기가 높다.

◇ 건강을 생각한다면 '장성 새싹삼'이 제격 장성이 국내 최대의 새싹삼 생산지라는 사실은, 건강 식단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다.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새싹삼의 60%가 장성산이다.

새싹삼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특산품이다. 새싹삼 재배에 최적화된 특허시설에서 인삼 맞춤형 토양을 사용해 기른다.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새싹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간을 보호한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과 학업,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 알맞은 채소다.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먹는 방법이 간편하다. 일반적인 채소처럼 샐러드

등으로 간단하게 요리해 아무 때나 먹으면 그만이다.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다.

가격은 1만 3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우드락 선물세트, 수제과자 세트 등 추석 선물용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 '포도의 여왕' 샤인머스켓, 고급 선물로 강추 이제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낯설지 않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고급 과일'로 많이 소개됐기 때문이다. 장성에서도 양질의 샤인머스켓이 재배된다. 2019년 전라남도 우수 원예작물 품질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다.

샤인머스켓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교 불가한

맛'을 첫손으로 꼽는다.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툭 터지면서 향긋한 맛과 향이 느껴진다. 신맛은 적고 단맛이 풍부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선호도가 높다.

샤인머스켓에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다. 또 암 예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가격은 7만원이며 삼서농협 등에서 판매를 맡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명품 과일의 고장 장성군에서 한가위를 맞아 고품질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풍성하게 마련했다"면서 "이웃, 친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장성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지역 농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구아바’·‘다감떡’도 있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일상 가운데 하나가 외식이 줄어들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기려면 무엇보다도 식재료가 좋아야 한다.

장성군은 이미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입맛을 위한 다양한 식재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여러 요리에 두루 쓰일 수 있는 새송이버섯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되어 노화를 막아준다. 장성 새송이버섯은 자연산 송이와 식미가 비슷해 고정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구매 문의는 장성반산버섯영농조합법인으로 하면 되며, 가격은 1만 5000원에서 3만원 선이다.

상큼하고 개성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면 장성에서 키운 열대과일 '구아바' (사진)로 만든 제품도 추천할 만하다. 유기농으로 재배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구아바 잎 차는 3만원, 빵에 발라 먹으면 좋은 구아바잼 선물세트는 2만 2000원이다. 판매처는 빈스구아비농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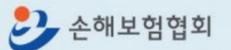
이 밖에도 면역력 향상에 특히 좋은 전통 황칠진액과 모시송편, 다감떡, 강정, 식혜 등 다양한 선물용 제품들이 추석 선물로 마련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장성군이 직접 선별한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

보는 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업체별로 연락처나 배송비 유무, 메일주소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인터넷 주문은 물론이고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성군은 지난 25일부터 광주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와 장성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내달부터는 장성 남면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기획전도 연다. 오는 3일에 재개장하는 장성호수변길마켓에서도 장성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석 선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뛰어난 품질의 제품들을 정성스레 선별했다"면서 "올 한가위에는 장성 농특산물과 가공품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튼튼한 지킴이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